

대중의 인기 얻는 미니 시티

미국 뉴욕 맨해튼 서쪽 미드타운(34가 인근)의 허드슨 야드는 2000년대 초반까지 낙후된 철도 부지였으나, 2019년 3월 15일을 기점으로 허드슨 강변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했다. 28에어커(113,311.98㎡)의 대지, 250억 달러(약 30조 3,450억 원)의 예산, 약 6년의 공사기간이 투입된 이 미니 시티는 크게 16개의 고층 빌딩과 공원으로 조성됐다. 특히 2,500개 계단으로 이뤄진 인공벌집 형태의 독특한 구조물 ‘베슬’을 비롯해 고급 백화점·쇼핑몰이 들어선 뉴욕의 새 랜드마크로 탈바꿈하면서 도시 개발에 대한 비전과 추진력의 결정체로 칭찬받고 있으며 뉴욕이라는 도시의 저력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시티 안에는 호텔, 레지던트, 오피스, 전시와 공연, 쇼핑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꾸려져 있으며, 특히 상점과 푸드코트가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다. 또, Neiman Marcus 백화점을 비롯한 100여개의 명품매장과 중가 브랜드 상점들이 입주한 ‘20 Hudson Yard’의 지상 7층 건물에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 캐주얼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매장, 키오스크, 슈퍼마켓 등 30여개의 푸드 서비스 상점들이 개장했다.

세계적 요리 다양하게 선보여

고층에는 세계적인 한국계 요리사 David Chang의 한국 레스토랑 ‘Kawi’, Thomas Keller의 전통 미국 레스토랑인 ‘TAK Room’, Neiman Marcus 백화점 내의 고급 델리식당 ‘The Zodiac Room’, 아시안 레스토랑인 ‘Wild Ink’, 지중해식 해산물 레스토랑 ‘Estiatorio Milos’와 ‘Milos Wine Bar’, 텍사스 스타일 BBQ 레스토랑인 ‘Bar Stanley’ 등 풀 서비스 레스토랑을 배치해 세계 정통 요리와 함께 절경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 밖에도 미동부의 대표적인 스페셜티 슈퍼마켓인 ‘Citarella’, 스페인 버전의 ‘Eataly’로 불리는 델리 푸드코트 ‘Mercado Little Spain’ 등 각종 식품과 델리를 한자리에 모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낵과 디저트로 방문객 호사

달콤한 스낵과 디저트를 위한 코너도 마련됐다. 국내에서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Van Leeuwen’, 초콜릿 전문점 ‘Li-Lac Chocolates’, 셀프 체크 아웃 매장 ‘Drug Store’, ‘Jack’s Stir Brew Coffee’, 프랑스계 베이커리



'Bouchon Bakery', 호주계 스낵 매장 'Bluestone Lane', 케이크 전문점 'William Greenberg Dessert', 간식과 음료 전문점 'Teak Tearoom', 캔디와 초콜릿 전문점인 'Dylan's Candy Bar'가 방문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다.

베슬 옆에 자리잡은 7층 짜리 쇼핑몰 '숍 앳 허드슨야드(the Shops at Hudson Yards)'의 2층에는 커피업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커피전문점 'Blue Bottle'이 입점해 있는데 오픈 이후 줄곧 고객들이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선 채 기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Blue Bottle' |



지역산업 중심지로 자리잡아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의 허드슨 야드 지역은 전형적인 미개발 지역으로 식당과 상점이 부족한 곳이었다. 하지만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됨과 동시에 관광객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산업종사자에게까지 명소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

역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거대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허드슨 야드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며, 프랑스 베이커리 매장인 'Maison Kayser'와 Danny Meyer의 프렌치 비스트로인 'Cedric's' 역시 이곳에서의 개점을 앞두고 있다. 허드슨 야드몰은 아직은 출발단계에 불과하지만 곧 뉴욕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 모두들 예측하고 있다.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고, 세계적인 금융회사, 엔터테인먼트, 각종 소비자 회사들이 속속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을 뿐 아니라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어 있어 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은 레스토랑과 식품마켓의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ey Point

관광명소나 세계중심지에 한국음식 진출할 것

세계 음식과 문화의 중심지 '뉴욕 허드슨 야드'에 쇼핑과 함께 각국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 마켓이 생겨 관광객과 뉴욕 거주민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각종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 마켓에서 특히 큰 사랑을 받는 매장은 폴 서비스 한국 레스토랑, 김밥,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테이크아웃 매장. 더 많은 세계인이 한국음식을 맛볼 계기가 된 이 마켓의 사례는, 관광명소나 세계 중심지에 한국음식을 진출시키는 것이 한국음식의 홍보와 전파에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인지 증명하는 사례다.

| 허드슨 야드 쇼핑몰의 다양한 푸드서비스 |

